

2008. 09. 23 (화)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지역발전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합심노력하고 있으며, 새정부의 국가정책 추진방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서 전국 각道 중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이 초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전 도민의 가슴속에 누적되어 왔던 소외감을 다시금 자극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은 예로부터 서울과 지방,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토내륙의 중핵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권과 영·호남권의 중간에 위치하여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어 온 지역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을 따라 자리잡은 3대 국립공원과 댐 개발로 인해 환경보전 등 각종 규제는 엄청난 반면, 정부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토의 각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인프라 구축 및 첨단산업·R&D 기반이 집적되어 있고,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전국을 2시간대에 연결하는 4×4 고속도로와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등 광역교통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동북아 IT·BT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오송·오창 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원주 기업도시가 미래의 국가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을 따라 산재한 아름다운 산수관광자원과 중원문화권을 비롯한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등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초광역개발권내 핵심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의 역점추진과제로 선정, 집중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의 민심을 아우르고, 산업·문화관광·인프라 등을 융합 형성한다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새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최우선적 성공요인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달성하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제시한 口자형 4대 벨트를 국토중심의 내륙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국토융합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 북부, 강원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중심에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하여, 전국 5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